해양수산부	보 도 자 료		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사는 국민의 나라
보도 일시	2022. 10. 20.(목) 조간 2022. 10. 19.(수) 11:00	배포 일시	2022. 10. 19.(수) 06:00
담당 부서	항만국 항만개발과	책임자	과 장 김규섭 (044-200-5930)
		담당자	사무관 김기현 (044-200-5937)

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 착공

- 총 길이 7.5km의 호안으로 트럭 262만 대 분량의 토사 수용 -

해양수산부(장관 조승환)는 '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조성사업'을 10월 20일(목) 착공한다고 밝혔다.

해양수산부는 선박 대형화 추세와 광양항의 물동량 증가에 대비해 대형 선박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입항, 그리고 출항할 수 있도록 광양항 내 항로를 준설하는 등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다. 또한, 항로 준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사를 처리하는 광양항 3단계 투기장을 운영하고 있는데, 이 투기장은 2026년이 되면 포화될 전망이다. 이에 따라 2026년까지 3,864억원을 투자하여 준설토를 처리하기 위한 투기장을 추가로 조성할 계획이다.

입찰공고, 설계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현대건설(주) 컨소시엄*이 시공사로 선정되어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. 2026년까지 총 길이 7.5km의 외곽 호안 조성이 완료되면 24톤 트럭 262만대 분량인 4,460만㎥의 준설토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. 특히, 해양수산부는 전체 구역을 4개로 분할 시공하여 해충발생을 유발하는 물웅덩이 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이고, 초대형 침전지**와 여수토*** 등을 설치하여 환경 위해요인도 줄일 예정이다.

* 현대건설(주), ㈜태영건설, ㈜금호건설, ㈜한국항만기술단, ㈜대영엔지니어링 등 12개 사
** 해수에 섞여 있는 흙이나 모래의 외부배출 방지를 위해 흙이나 모래를 가라앉히는 시설
*** 토사는 침전되고 해수는 자동으로 외부로 배출하도록 투기장 내 설치한 유출구

또한, 시멘트 교반 혼합주입 선박(Hybrid DCM ship) 등 특수장비를 활용하고,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공사를 실시해 공사 기간도 당초 계획보다

6개월 단축(52개월 → 46개월)한다. 아울러, 2025년부터는 일부 구간 공사를 완료해 실제 준설토 투기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.

한편, 2033년, 이 준설토 투기장에 투기가 완료되면, 광양항 배후단지에 여의도 면적의 1.5배인 약 420만㎡의 부지가 공급된다. 이 부지는 석유·화학, 해양신산업, 해양수산 연구개발 사업 기능 등이 집적된 산업클러스터로 조성할 수 있다.

김규섭 해양수산부 항만개발과장은 “광양항 광역준설토 투기장 조성 공사가 당초 계획대로 착공되어 광양항 내 항로확보와 각종 개발 시 발생하는 토사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.”라며, “해양수산부는 투기장 조성과 관련해 환경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, 각종 안전사고도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.”고 밝혔다.

대한민국 정책브리핑
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참고1 **광양항 광역 준설토 투기장 사업개요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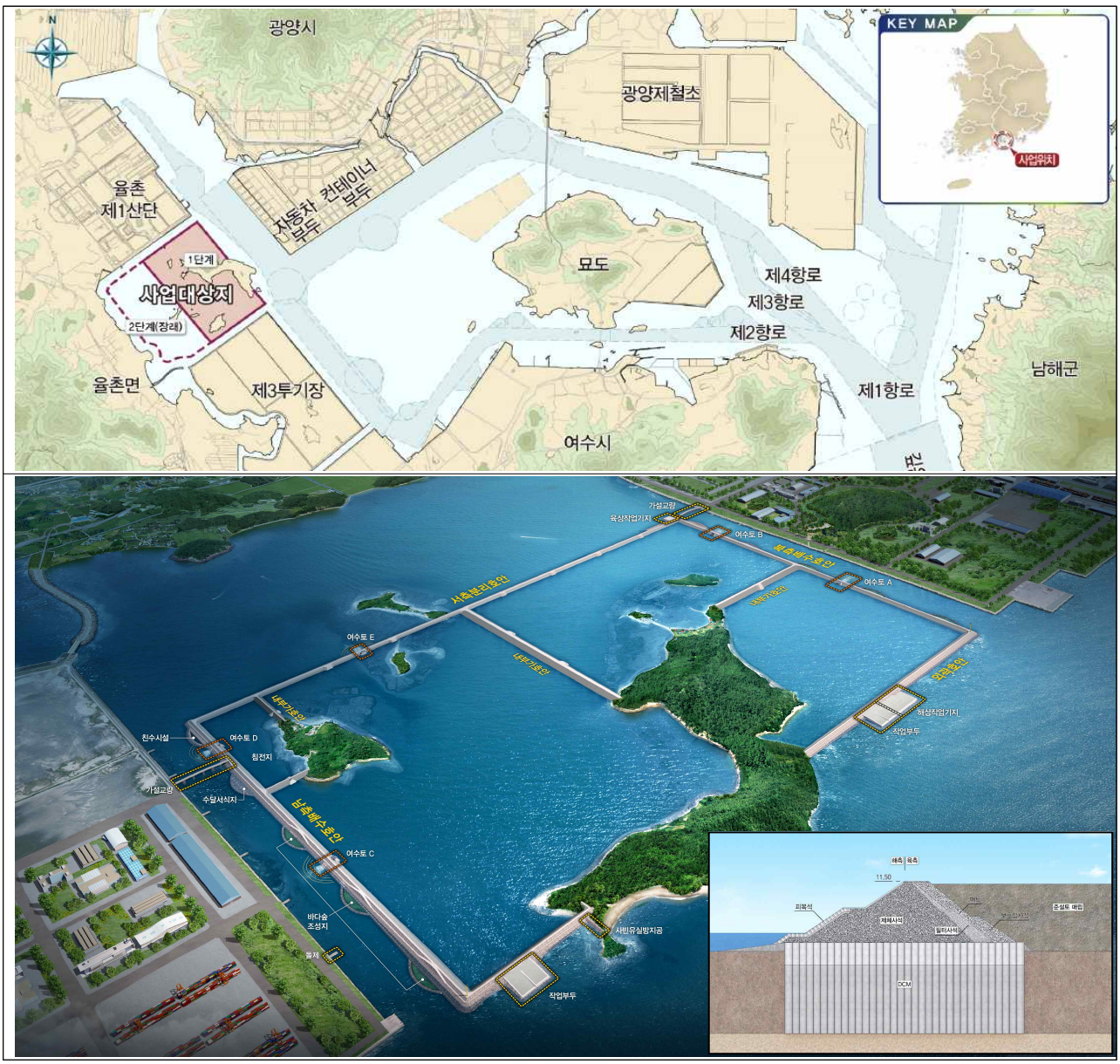
□ 사업개요

○ **(사업목적)** 광양항 수역시설 정비 시 발생되는 준설토의 적정처리를 위한 신규 투기장 건설

○ **(사업규모)** 투기장 호안 7,476m, 내측호안 2,104m 등

○ **(총사업비/사업기간)** 3,864억 원 / ’20. ~ ’26.

□ 위치도 등



참고2 **광양항 일반 현황**

□ 일반 현황

○ **(시설현황)** 42개 부두 108개 선석(컨 12개 선석)

○ **(경제규모)** 생산액 92.5조원, 고용 4.5만명('21년말 기준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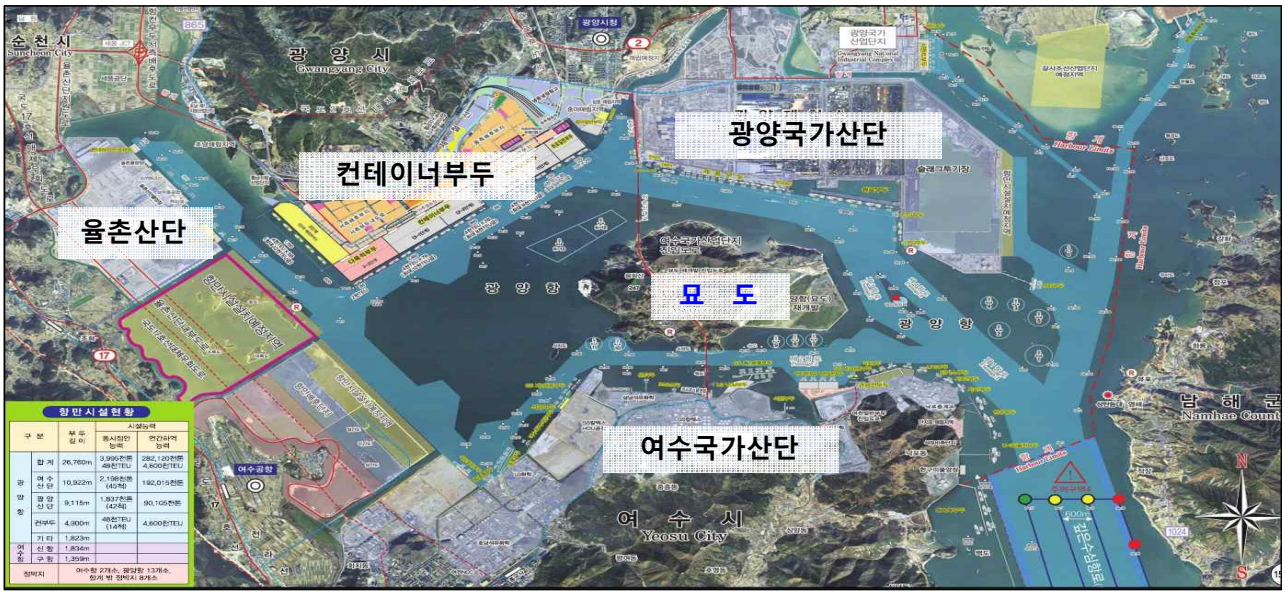
* **(여수산단)** 72조원, 2.5만명 **(광양산단)** 16.9조원, 1.4만명 **(율촌산단)** 3.6조원, 0.6만명

□ 선박 입출항 및 물동량 처리현황

○ **(선박입출항)** 연간 6.4만척(2021년, 부산 10.5만, 울산 4.7만, 인천 3.1만)

* (선종별) 위험물운반선 33.6천, 컨테이너선 6.3천, 자동차선 0.7천, 일반선 22.0천

○ **(화물물동량)** 292백만톤(전국 1,593백만톤의 18.3%, 부산 443, 울산 185, 인천 158)

- 컨화물 : 213만TEU(전국 3,004만TEU의 7.1%, 부산 2,271만, 인천 335만)
- 非컨화물 : 258백만톤(전국 1,051백만톤의 24.5%로 1위, 울산 179, 인천 106)

□ 광양항 현황